

“재범 막는 보호관찰소... 혐오시설 아닌 안전시설”

김형철 안산보호관찰소 계장

“보호관찰은 경찰·복지 업무 모두 수행
대상자와 인간적 교류... 경조사 꼭 참석
관찰관 실망시키지 않으려는 모습 대견
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복귀 도움”

“사회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보호관찰소가
지역사회에서 혐오시설로 인식돼 안타깝다. 보
호관찰 업무에 대한 사회의 이해와 인식 변화
가 필요하다.”

10여년째 전자감독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안
산보호관찰소 김형철(사진·37) 계장은 5일 서
울신문과 만나 보호관찰 업무에 대한 사회의
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며 이같이 강조했다.
전자감독 유공으로 장관 표창을 받은 그는 “전
국 57개 보호관찰소 1522명의 보호관찰관 모두



사회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”고
말했다.

그는 전자감독 등 보호관찰 업무는 재범 방
지를 위해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지만 사회

에 방치된 대상자들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
그들이 필요한 도움을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
지적했다.

김 계장은 “성폭행을 비롯해 미성년자 유괴,
살인, 강도 등 4대 특정범죄자를 관리하는 전자
감독은 경찰과 사회복지 두 분야의 업무 특성
을 모두 갖췄다”면서 “경찰처럼 도주한 대상자
를 추적하기도 하지만 숙소를 알선하고 직업훈
련을 소개하는 등 사회복지 요소도 강하다”고
설명했다.

실제로 김 계장은 업무를 수행하며 대상자들
의 처지를 이해하고 위로하며 다양한 인간관계
를 맺고 있다. 현장 출동해 새벽까지 귀가하지
않고 ‘사는 게 힘들다’며 울고 있는 대상자를 감
싸 안고 위로하기도 했다고 한다. 나중에 방황
하는 대상자를 돕고자 동거하고 있던 여성과
결혼을 주선하기도 했다.

그는 “축의금을 들고 결혼식장을 방문했더
니 몇 안 되는 하객 중 한 명이었다”며 고아인

그의 처지를 안타깝게 여겼다.

김 계장은 업무외적으로 인간적 교류를 할
수 있는 경조사는 될 수 있으면 모두 참석하고
있다.

그는 “얼마 전 한 대상자 결혼식에 참석했는
데 나중에 앨범사진에서 우연히 찍힌 제 모습
을 발견하곤 함께 웃었다”고 말했다. 또 “최근
에 다른 대상자 조부 장례식에 참석했다”며
“어렸을 적 아버지를 여의고 할아버지 밑에서
자라 매우 친밀한 관계였기에 상실감이 클 것
같아 찾아가 위로했다”고 설명했다.

김 계장이 이렇듯 대상자들에게 공을 들이는
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. 그는 “경조사에 참석
하면 담당 보호관찰관을 좀 더 특별히 생각하
고,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 노력하는 대상자의
모습을 엿볼 수 있다”며 “이런 것들이 모여 결
국 재범을 방지하고 대상자들이 사회의 건전한
구성원이 되길 희망해 본다”고 말했다.

글·사진 남상인기자 sanginn@seoul.co.kr